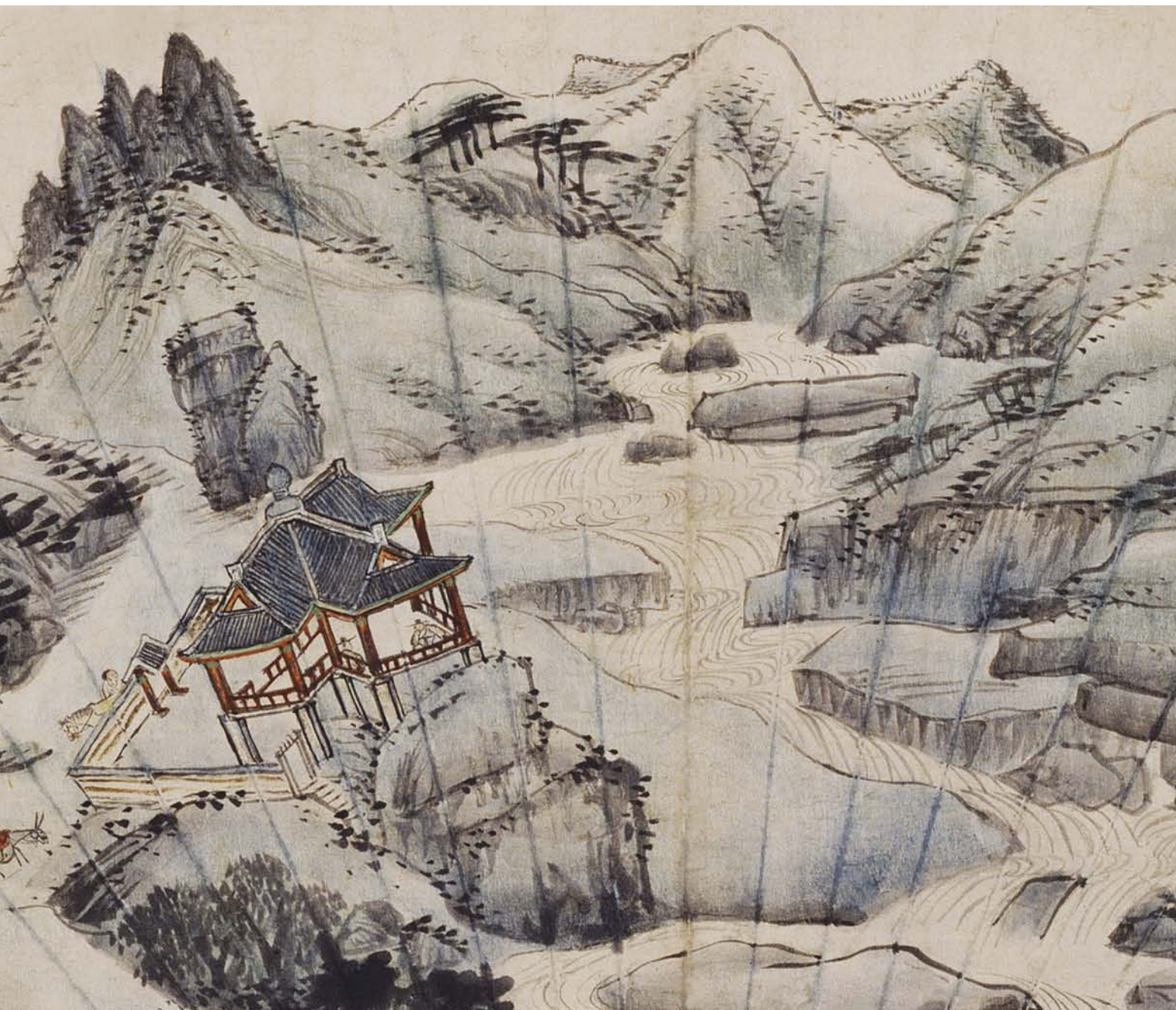
ISSN 2288-453X

광명시의회 소식

Gwangmyeong City Council

2013.04-06 Vol.51



이인상, 종강모루에 부친 모루명

작은 누정에 나를 담으니 (小樓容吾)
고요히 지내면서 명문을 짓는다. (潛居有銘)
문장은 실함에서 들뜨지 않고 (文不浮實)
행실은 명예를 쫓지 않는다. (行不狥名)
말과 행동은 속됨에 들지 않고 (語不入俗)
독서는 경전을 벗어나지 않는다. (讀不出經)
담담함으로 벗을 얻고 옛것을 스승으로 삼는다. (師古爲程)
실천하매 천명을 어기지 않으니 (窮不違命)
자나 깨나 맑음 뿐이로다. (夢寐亦淸)

이인상李麟祥 (1710–1760) 조선시대 대표 문인 화가.
갑술년(1754) 늦여름 10일, 능호관 이인상은 종강모루鐘岡茅樓에 들어 이에 좌우명을 써서 스스로 경계를 삼았다. 추사 김정희(1786~1856)는 이인상의 서화를 이해하면 곧 문자기를 갖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하였는데, 이는 조선시대 문인들의 미의식과 지향점을 알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능호의 묘처는 진함이 아니라 담담한 데에 있으며 익은 맛이 아니라 생생한 맛에 있다. 오직 아는 자만이 이를 알리라." – 『능호필첩』凌壺筆帖 발문 中

이인상, 송하관폭도松下觀瀑圖 종이에 엷은 색, 23.9x63.2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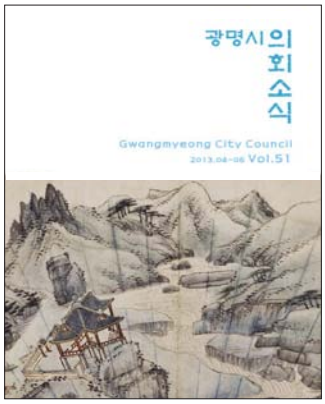
Contents

06 의장 인사말
· 183회 임시회 인사말

08 임시회 현장
· 제182회 · 제183회 임시회

10 의정활동
· 조례안 및 규칙 심사
· 주요의안 처리현황
·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 광명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사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 정책제안
· 문현수 의원
"시민건강권 담보한 가학폐광산개방 중단해야"



Cover Story

조선후기 진경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1679-1759)의 '세검정도'이다. 세검정은 너른 바위가 즐비하고 풍광이 빼어나 군왕과 관료들이 즐겨 찾던 휴식처였다. 북한산 백운봉에서 발원한 홍제천의 시냇물이 너럭바위를 감아 돌아 시원하게 흐르고 있다. 세검정도는 부채에 그린 그림이다. 세검정도가 무더위에 지친 시민에게 삽상한 바람으로 불기를 바라며 디자인하였다.

정선, 세검정도 洗劍亭圖 종이에 엷은 색
22.7x61.9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0 의정현장중계
· 김익찬 의원 시정질문 및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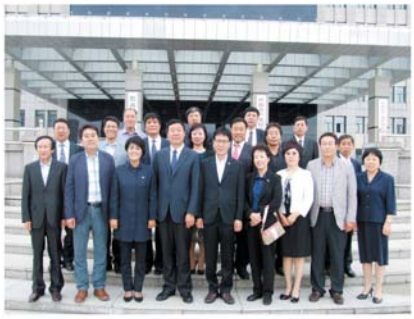
22 산책
'민회빈 영원을 살다'
– 우리가 알아야 할 민회빈 강씨

24 세시풍속
태양의 축제, 단오

26 쉼표, 고전
태종 이방원 영단선

28 의원동정

30 의정활동 이모저모



소통하는 의회, 실천하는 의회, 희망주는 의회

광명시의회소식

발행인 정용연
편집인 조화영, 권태진, 서정식, 문영희
발행처 광명시의회

주소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대표전화 02. 2680. 2500
팩스 02. 2680. 2637
홈페이지 www.gmcl.or.kr

ISSN 2288-453X

제183회 개회사

“처음처럼,
시민과의 공약을 하나하나 차근히 완수하여 존경과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광명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꽃내음과 신록이 싱그러운 계절입니다. 활기차게 시작하는 제183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엊그제 시무식을 한 것 같은데 벌써 5월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버이에 대한 공경과 어린이에 대한 사랑의 의미를 의정활동으로 몸소 행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묵묵히 어르신과 어린이를 보살피는 사회 · 봉사단체 회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6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6대 의회에서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민생을 두루 살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실천의 방증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얼마큼 만족하셨을까 짐짓 가늠해 보곤 합니다. 1여년 남짓 임기가 남은 지금 시점에서 저희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진심어린 시선을 헤아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각종 제도와 법령에 따른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혁신도 필요하지만 운용의 묘를 살려가는 것 또한 중요하기에 우리 의원님들 모든 지혜를 모아 지방의회의 자치역량 강화는 물론 시민들의 삶 개선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시민들 평가를 받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임시회가 참으로 중요한 시점의 회기가 아닌가 합니다. 6대에서 만난 저희들끼리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5월 21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제183회 임시회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

칙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와 광명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집행부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3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이 상정되어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본예산 대비 약 3.7% 190억8천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적정하고 건실한 편성인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에 있어서는 상위법령과의 관계, 현실적인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심사로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처음처럼, 시민과의 공약을 하나하나 차근히 완수하여 존경과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해주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녹음이 싱그러운 계절, 푸르름 마음껏 만끽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 5. 15

광명시의회 의장 정 용 연

시민을 섬기는 열린 의정

광명시의회 제182회 임시회

Commemoration of Visiting Gwangmyeong City

제182회 임시회는 4월 9일 개회하여 규칙 및 조례안 심사,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건을 처리하고, 주요사업장을 현장 방문한 후 4월 16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16건의 안건 중, 6건이 의원발의 안이다.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 6건의 주요내용(제안이유)은 자치행정위원회의 김익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2건, 고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아동학대 ·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소통하는 광명시민의 대변자

광명시의회 제183회 임시회

제183회 임시회는 5월 15일 개회하여 규칙 및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건을 처리하고 5월 21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총 11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이중 6건이 의원발의 안이다.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 6건의 주요내용(제안이유)은 자치행정위원회의 김익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 『광명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이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여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190억 8,013만 3천원 증가한 5,403억 215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심의 결과 698,100천원 삭감한 5,402억 3,234만 9천원으로 심의 의결하였다.

의 · 정 · 활 · 동

광명시의회 제18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 : 권태진 의원, 서정식 의원
문영희 의원

● 제182회 임시회 의사일정 확정

3월 26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8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하였다.

● 조례 및 규칙안 심사(2013. 4. 10)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보류

제출일자 2013. 3. 22
제 출 자 김익찬 의원 외 5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심사 결과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50%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나 구체적인 진행 방법에 대해 신중한 검토 필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수정의결

제출일자 2013. 4. 1
제 출 자 정용연 의장 외 5인

의원의 10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이의제기 및 반대발언 · 답변 등을 할 수 없다. 단, 의장은 10분 자유발언 내용 중 이해관계인의 발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발언의 기회를 줄 수 있다로 수정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 서정식 의원
간 사 : 고순희 의원
위 원 : 권태진 의원, 김익찬 의원, 조화영 의원

● 조례 및 규칙안 심사(2013. 4. 10)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제출일자 2013. 3. 12
제 출 자 김익찬 의원 외 4인

광명시장은 재위탁 재계약시에도 사전에 적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해냄 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동의 ➡ 원안의결

제출일자 2013. 4. 2
제 출 자 광명시장

광명동 781-1에 2013. 5. 12 ~ 2016. 5. 11까지 재위탁(3, 4층 540.6㎡)

광명시 치매관리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의결

제출일자 2013. 3. 21
제 출 자 고순희 의원 외 4인

광명시 거주 시민에게 치매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건강증진에 기여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 승인안 ➡ 원안의결

제출일자 2013. 4. 2
제 출 자 광명시장

광명전통시장 고객쉼터 건물 및 토지 추가 매입안으로 조성예정 부지가 전통시장 중심에 있어 인접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쉼터 조성

광명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의결

제출일자 2013. 4. 2
제 출 자 광명시장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으로 광명시 시세조례를 일부개정(과세대상 신고기한을 일치시키고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명칭변경과 세율 변경)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의결

제출일자 2013. 3. 25
제 출 자 서정식 의원 외 2인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야간, 휴일에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제공, 사용료 등의 면제에 관한 구체적 근거 마련과, 고문의 임기, 재선임 또는 재위촉 제한으로 합리적인 주민자체센터 운영

● 주요사업 현장방문 (2013.4.11~4.15)

▲광명기업지원센터(4.11)

▲광명시 자살예방센터(4.11)

▲시민주말농장(4.11)

▲시립 청소년 모바일센터(4.11)

▲광명시 U-통합관제센터(4.12)

▲시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4.12)

▲철산도서관(4.12)

▲광명학습지원센터(4.12)

▲시립 나름 청소년문화의집(4.12)

▲광명5동 주민센터(4.15)

▲광명3동 주민센터(4.15)

▲광명 전통시장(4.15)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 문영희 의원
간　사 : 유부연 의원
위　원 : 이준희 의원, 문현수 의원
　　이병주 의원, 강복금 의원

● 조례 및 규칙안 심사 (2013. 4. 10)

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의결

제출일자 : 2013. 4. 2
제 출 자 : 광명시장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인 차상위 계층의 확대에 따른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확대로 기본 보육료 지원 2종 대상 세대를 정비하기 위함.

광명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 ➡ 원안의결

제출일자 : 2013. 4. 2
제 출 자 : 광명시장

광명시 하안동 시범공단에 있는 재활자립 작업장에 대해 2013. 7. 1~2016. 6. 30까지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광명시지부에 재위탁

광명시 아동학대 ·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의결

제출일자 : 2013. 3. 21
제 출 자 : 유부연 의원 외 4인

아동과 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증가하는 아동 및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

오리이원익기념관 민간위탁동의안 ➡ 원안의결

제출일자 : 2013. 4. 2
제 출 자 : 광명시장

노후시설인 오리이원익 기념관 리모델링을 통하여 전통문화 선양과 사회교육에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기 위함.

광명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의결

제출일자 : 2013. 4. 2
제 출 자 : 광명시장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용어 정의와 신설되는 체육시설 사용료 및 감면대상 확대로 시민편의 제공

광명시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의결

제출일자 : 2013. 4. 2
제 출 자 : 광명시장

폐기물의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함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의결

제출일자 : 2013. 2. 21
제 출 자 : 문현수 의원 외 7인

교통혼잡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게 함.

광명시 자연재해원인 조사 · 분석 · 평가 조례안 ➡ 원안의결

제출일자 : 2013. 4. 2
제 출 자 : 광명시장

자연재해 발생지역 원인 조사 · 분석 ·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사업 현장방문 (2013.4.11~4.15)

▲시립 소하누리어린이집(4.11)

▲시흥대교 확장공사(4.11)

▲소하동~가학동 자전거도로 개설공사(4.11)

▲철망산 근린공원 공사(4.12)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4.12)

▲다니엘의집(4.12)

▲영회원(4.15)

▲맑은물 사업소(4.15)

▲가학광산동굴

Commemoration of Visiting **Gwangmyeong City**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 유부연 의원
간　사 : 이병주 의원
위　원 : 문현수 의원, 김익찬 의원
　　이준희 의원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선임의 건이 4월 9일 제18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원안의결됐다.

조사특위는 유부연, 이병주, 문현수, 김익찬, 이준희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4월 9일부터 9월 2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조사특위는 광명시 민간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현황을 파악하고, '광명시 사무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심도있게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위는 광명시 전 부서의 민간위탁 현황을 파악하고,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위탁시설 관련부서 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채택 및 자료제출요구, 민간위탁시설 현장방문, 추가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 · 정 · 활 · 동

광명시의회 제18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 : 권태진 의원, 서정식 의원
　　문영희 의원

● 제183회 임시회 의사일정 확정

5월 8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8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하였다.

● 조례 및 규칙안 심사(2013. 5. 15)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부결

제출일자 2013. 5. 6
제 출 자 김익찬 의원 외 3인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토론하는 제도로 신중한 검토 필요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제출일자 2013. 5. 6
제 출 자 김익찬 의원 외 3인

선출된 상임위원장에 대해 불신임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의장, 부의장 불신임안은 법령에 있으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2013.5.15)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추경에 맞는 예산 편성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감액 및 계수조정 등 심사결과 1건 2천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였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 서정식 의원
간　사 : 고순희 의원
위　원 : 권태진 의원, 김익찬 의원, 조화영 의원

● 조례 및 규칙안 심사(2013. 5. 15)

광명시 홍보대사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의결

제출일자 2013. 5. 6
제 출 자 광명시장

광명시정의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광명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에 관한 조례안 ➡ 원안의결

제출일자 2013. 5. 3
제 출 자 유부연 의원 외 5인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광명시 치매관리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 원안의결

제출일자 2013. 5. 6
제 출 자 광명시장

광명시 치매관리센터를 설치해 원활한 사업수행과 효과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제출일자 2013. 5. 6
제 출 자 광명시장

공무원들의 국내출장시 현실에 맞게 숙박비 지급 단가를 인상하는 것임.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제출일자 2013. 5. 3
제 출 자 이준희 의원 외 4인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한 민원서류의 수수료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광명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의결

제출일자 2013. 5. 6
제 출 자 광명시장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으로 광명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임.

●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2013.5.16)

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는 추경에 맞는 예산 편성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감액 및 계수조정 등 심사결과 5건 7,873만 8천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였다.

Commemoration of Visiting
Gwangmyeong City
Commemoration of Visiting
Gwangmyeong City
Commemoration of Visiting
Gwangmyeong City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 문영희 의원
간 사 : 유부연 의원
위 원 : 이준희 의원, 문현수 의원,
이병주 의원, 강복금 의원

● 조례 및 규칙안 심사(2013. 5. 16)

광명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결

제출일자 2013. 5. 6
제 출 자 광명시장

경로식당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나 운영 방법과 지원기준 등에 미비점이 있었음.

광명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수정의결

제출일자 2013. 5. 3
제 출 자 김익찬 의원 외 4인

광명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 보완하고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의결

제출일자 2013. 5. 3
제 출 자 이준희 의원 외 4인

공동주택 층간 소음 갈등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갈등해소 지원센터 설치 및 자문위원회 구성 등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이준희 의원
간 사 : 강복금 의원
위 원 : 서정식 의원, 문영희 의원, 고순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자치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5,403억 215만 9천원으로 2013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90억 8,013만 3천원이 증가(3.7%의 증가율)됐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정한 내역으로, 총 삭감규모는 20건에 13억 6,161만 1천원이다.

“시민 건강권 담보로 한 가학폐광산 개방 중단해야”

문현수 의원 (광명4,5,6,7동, 철산4동)

요즘 광명시 행정의 주된 목표는 가학폐광산인 것 같습니다. 얼마전 광명시의회에서 가학광산 내부의 습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동굴문명전 내부의 습도는 68.8%, 공연장 내부는 65%, 발효식품 저장고는 99%로 매우 높았습니다. 높은 습도는 알레르기성 질환, 아토피성 피부염, 비염, 기관지염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는 올해 방문객 20만명을 목표로 초, 중등학생들을 체험학습이란 미명하에 간식비와 관광버스 대여비를 지원하면서 폐광산 안으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학부모는 가학폐광산에 체험학습을 다녀온 초등학교 1학년 딸이 피부 질환이 생겼다며 광명시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높은 습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중금속, 낙석위험 등 가학폐광산은 아직 안전진단 용역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어린 아이들까지 들여보내면서, 가학광산 방문자 수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광명시를 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시장의 치적보다 시민들의 건강권이 우선이라는 것은 상식이지만 어쩐 일인지 광명시 행정은 이런 상식을 빗겨갑니다.

양기대 시장이 작년에 “가학광산이 문을 연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기념” 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뜻 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가학광산이 뜻 깊고 마음에 되새길 기념적인 역사일까요? 과연 아름다운 문화유산일까요?

100년 전 일본은 우리의 주권 뿐만 아니라 조선 황실의 광업권까지 강제로 일본인에게 넘겼습니다. 일제는 조선인들을 강제 징용해 일을 시켰습니다. 수많은 조선인들이 강도 높은 노동과 배고픔으로 고통을 겪었고, 갱도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는 역사적 기록도 있습니다.

가학광산의 역사는 우리가 “기념”해야 할 역사가 아니라 수탈과 착취와 통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두가지는 “인권의식과 역사인식”이라고 말입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로 가학폐광산을 개방하는 광명시 행정에서 인권의식과 역사인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학폐광산 개방은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중단해야 합니다.

『정책제안』은 광명시의회 12명의 의원 누구나 정책에 관한 기고를 하는 코너입니다. Vol.51호 『정책제안』에는 문현수 의원이 기고하였습니다.

시정질문

김익찬 의원 (철산3동,하안1,2동,학온동)

Q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CCTV의 화소수가 얼굴 인식이 될 수 있는 130만화소 이상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예산 및 대안에 관한 사항과 중·고등학교의 CCTV를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할 방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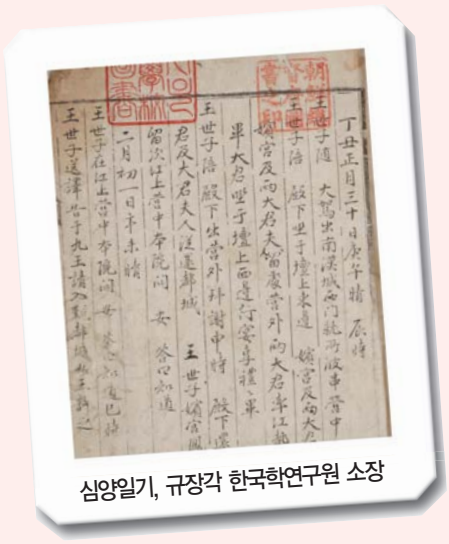
A 광명교육지원청에 성능향상 및 유지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4. 16 발송하였음. 성능개선을 위한 CCTV 카메라 교체시 총 26억8천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 재정상 현재 실행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각 학교에서 관련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며 차후 도 교육청 및 광명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노력하겠음.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방안은 교육청 및 광명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음. 4억9천8백만원 소요됨.

Q **하안다목적복지회관의 전반적인 시설개선 및 신축계획(승강기 설치, 복합복지건물 신축계획, 예산확보방안, 소요액, 공사기간)은?**

A 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계획보다 확대된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신축하고자 함. 120억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 · 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Q **철산대교 교통란 해소를 위한 대안책과 금천교 캐노피 설치와 보행에 대한 대안책은?**

A 기존 교량으로 교통량 처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대중교통 활성화 시책 추진 등과 더불어 광명대교와 금천교 사이에 신설교량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음. 금천교 캐노피 설치와 보행에 대한 대안책은 서울시와 실무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협의가 되면 즉시 추진하도록 하겠음.


심양일기,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유한한 인간의 삶에 영원을 사는 이들이 있다. 불멸의 작품을 남긴 예술가, 혹은 삶 자체가 예술이었던 역사 속 위인들이 그러할 진데,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현현하는 이들을 우리는 '역사'라는 이름으로 기억한다. 역사는 '최고'를 그리고 '승자'를 기억한다.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원을 사는 한 여인'이 있다.

민회빈, 영원을 살다

글=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여정

'우리가 알아야 할 민회빈 강씨'

6월 19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들이 한 사람을 기리고자 함께 자리하였다. 광명의 역사이자, 조선의 역사를 넘어 이제 여성 CEO의 원형으로 명명하는 '민회빈 강씨'를 조명하기 위해서다.

'민회빈강씨를 통한 지역문화콘텐츠개발방안'이라는 주제의 광명문화원 향토사연구소가 마련한 학술제가 열렸다.[1)]

사료로 만나는 역사속의 그녀, 복원대상 문화재로 본 그녀, 소설과 드라마로 부활한 문화콘텐츠 속 그녀, 심양이라는 공간속의 그녀까지 시공간의 좌표 속에 민회빈에 대한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조명으로 민회빈의 근사치를 향해갔다.

'승자 VS 패자'

화단에 정답게 핀 꽃들, 이 꽃들도 전쟁을 할까? 꽃과 함께하는 미사여구들 속에서 '전쟁'만큼 낯선 수식이 있을까 한데, 꽃들의 전쟁[2)]이라는 인조의 후궁 소용 조씨와 강빈의 갈등을 그린 사극이 한창 방송 중이다. 드라마는 후궁 조씨의 축으로 쓰였기에 살아남은 소용 조씨를 승자로, 세자빈에서 폐출되어 사약을 받은 강씨를 패자로 그릴 것이다. 이는 인조의 조선이라는 한정된 시대의 단면으로 본 표면적인 판정승일 뿐. 유구한 시간을 지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역사는 '민회빈 강씨'를 추억한다. 역사는 승자를 기억한다.

'백성을 살리고자'

드라마는 임금의 사랑을 추구하는 궁중여인들의 암투를 주된 이야기로 풀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사료 속 민회빈 강씨는 볼모라는 현실과 포로라는 백성의 현실까지 보듬어 커다랗게 살아야 하는 삶의 과제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었다.

---

1) 박철하 수원대학교 사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김남윤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조선 바깥의 세상을 본 소현세자빈 강씨'라는 주제의 기조발표가 시작되었다. 이어 양철원 광명시청 학예연구사의 영회원(사적 357호, 민회빈 강씨의 묘로 애기능 아왕릉으로 불림) 복원 방향에 대한 1주제 발표가, 그 다음으로 민성혜 광명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의 '민회빈 강씨를 주제로 한 콘텐츠 분석 및 콘텐츠화'라는 2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제 3주제 발표주자로 나선 신춘호 방송대학TV 촬영감독은 '병자호란의 기억과 민회빈 강씨의 심양행적'이라는 테제로 심양에서의 민회빈 강씨의 연행노정을 쫓은 영상을 선보였다.

2) 2013년, jtbc 50부작 주말연속극으로 '궁중 잔혹사 꽃들의 전쟁'이라는 타이틀로 민회빈 강씨와 소용조씨의 갈등을 그렸다. 드라마는 왕의 사랑을 갈구하는 왕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꾸며졌다.

1637년 5월 17일[3] 심양 남변문 밖 시장에 조선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 노예로 거래되고 있었다. 시장에서 노예로 거래가 되는 백성을 위해 볼모로 잡혀온 세자빈은 과연 무얼 할 수 있었을까?

민회빈 강씨는 먼저 청으로부터 받은 농토를 개척 · 경작[4]하여 관소 무역으로 이문을 축적하였다. 그 다음 수순으로 축적한 재물로 시장에 선 조선의 백성을 속환했는데, 이에도 원칙이 있었으니 여성과 아이, 노인들을 먼저 속환하였다 한다.

여성이라는 성별과 세자빈이라는 신분을 넘어 닿고자 하였던 건 포로로 거래되는 백성의 현실, 바로 그 현실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였고, 그 참혹한 현실 너머로 백성을 구하고자 함은 아니었을까.

산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극한 현실에서도 좌절하지 않은 인간의 의지는 위대하다. 그 속에서 타인과 약자를 배려함은 또 어떠할까. 사농공상의 신분사회로 남녀의 구별이 유별했던 조선시대, 세자빈으로 농사를 짓고 무역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가능했던 건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애민정신' 때문은 아니었을까.

'역사속의 민회빈 강씨'

강빈은 1611년 강석기와 고령 신씨의 5남 3녀 중 둘째딸로 태어나 1627년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가례를 올렸다. 병자호란으로 강화성이 1637년 1월 22일 함락되자 인조는 오랑캐라 부르던 청에 남한산성을 내려와 삼궤구고두三跪九叩頭[5]의 예를 올렸다. 계속되는 청군의 약탈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혔다.[6]

청과의 약조에 따라 소현세자빈 강씨[1611~1646]와 소현세자[1612~1645]는 청에 인질로 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심양에서의 볼모생활이 시작된다.

8년간의 심양살이 후 세자빈 부부는 1645년 2월 17일, 그리던 고국 땅을 밟는다. 귀국한 일은 나라의 경사일 터이나, 노곤한 이들을 기다리는 건 고향의 환대가 아닌, 신문물을 접한 이들에 대한 날 선 경계와 낯선 시선이었다. 인조는 냉담하였다. 소현세자는 병으로 급서하고 이듬해 민회빈 강씨는 역모혐의로 사약[7]을 받고 태어나고 자란 광명에 묻힌다.[8]

70년 후, 민회빈

효종 즉위 후 5년, 황해감사 김홍욱의 강빈의 억울한 죽음에 관한 목숨을 건 상소를 시작으로 70여년이 지난 1718년[숙종44]에 강빈은 복위되어 '민회'愍:근심할 민, 懷:품을 회라는 시호를 받았다. '지위를 잃고 죽은 것을 슬퍼하고 가슴 아파했다'는 뜻이다. 백성을 생각했던 그녀, 임종 후에는 백성이 그녀를 생각하였다.

'민회빈, 영원을 살다.'

1797년 정조는 민회원을 방문[9]하여 제사를 지냈다. 조선의 성군, 정조는 민회빈에게 어떤 인사를 건넸을까? 정조가 민회빈을 기억했고 오늘의 우리가 그녀를 기억한다.

조선의 그녀에게 CEO, 여성리더십, 국제경영의 개척자란 현대적 수식을 붙이는 건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 귀감을 주었기 때문은 아닐까. 이 보편성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불멸하여 역사가 되어 흐른다. 역사는 흐른다. 그리하여 훗날 언젠가 민회빈은 저만치 우리 앞을 앞서 흐를지도.

---

3) 〈심양일기 瀋陽日記〉 (1637년 5월17일)

4) 김남윤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 연구원) 조선 바깥의 세상을 본 소현세자빈 강씨 참조. P. 12 심양관은 '포로로 잡혀간 조선인들을 모집하여 둔전을 경작해서 곡식을 쌓아 두고는 그것으로 진기한 물품과 무역하느라 관소의 문이 마치 시장 같았다'고 전한다. 세자와 강빈은 축적한 재물을 관소 운영과 피로인 속환 등에 사용하였고, 귀국할 때 가지고 돌아왔다.

5) 三跪九叩頭 – 궤(跪)는 무릎을 꿇는 것이고, 고(叩)는 머리를 땅에 닿게 한다는 뜻으로, 무릎을 꿇고 양손을 땅에 댄 다음 머리가 땅에 닿을 때까지 숙이기를 3번, 이것을 한 단위로 3번 되풀이하였다.

6) 청은 정묘호란 때 주민들을 붙잡아 몸값을 받고 되돌려주는 속환으로 많은 이득을 보았다.

7) 김남윤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 연구원) 조선 바깥의 세상을 본 소현세자빈 강씨 참조. P.13 1645년 소현세자는 학질로 판명된 병으로 4월26일 창경궁 환경전에서 급서하였다. 그해 가을, 궁중의 저주 옥사에 원손의 보모를 포함한 강빈의 궁녀들이 연루되어 고문을 받고 죽어나갔다. 1646년 1월 인조는 자신의 음식에 독이 들어갔다고 하며, 강빈의 나인 3인과 주방 나인 2인을 내사옥에 내려 국문하게 하고 강빈을 후원 별당에 가두었다.

8) 양철원 (광명시청 학예연구사)영회원의 연혁과 복원 방향 참조. 광명에 있는 강씨 집안 분산(墳山)에 예장(禮葬)하였다.

9) 윤유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역사인물 민회빈 강씨,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P.88 정조실록 – 1797년 정조는 김포의 장릉을 방문한 다음 인천, 부평을 거쳐 안산으로 가던 길에 민회원에 들러 민회빈과 그녀의 부친 강서기를 위한 제문을 지었다.

태양의 축제, 단오

'태양의 축제', 지구 반대편 잉카문명의 이야기가 아니다. 멀지 않은 과거, 대지 가득한 태양의 기운을 섬기고 즐긴 우리 선조 이야기다. 하늘과 땅 사이 양기가 그득 한 날, 태양의 기운이 극에 달하는 단옷날이면, 우리 선조들은 태양을 어떻게 맞이하였을까?

글=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여정 • 사진=주무관 김재석

'높은 신이 오시는 날'

음력 5월 5일 단오端午는 달리 수릿날이라 한다. 수리란 신神, 그리고 '높다' 라는 뜻[1]을 가진 말인 셈이니, '높은 신이 오시는 날' 이 된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닿은 태양신에게 집안의 평안과 오곡의 풍년, 자손 번창을 비는 단오고사端午告祀와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는 단오절사端午節祀를 지냈다.[2] 단오는 양의 수 5가 두 번 겹치기 때문에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다. 이날 부적을 쓰면 잡귀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집안의 제액도 모두 소멸될 수 있다 믿었다.[3]

또한 창포탕에 머리와 얼굴을 깨끗이 씻고, 벽사의 색인 연지나 주사를 바른 후[4] 단오옷 술의戌衣를 입었는데, 술의란 신의 (옷), 곧 태양신을 상징한 신성한 복식[5] 이었다. 이 모든 행위는 병이나 액을 물리쳐 복된 삶을 염원하는 의미로 치장은 물론 음식[6]이나 놀이도 예외는 아니었다.

너나 할 것 없이 고운 옷 입고 너른 마당으로 나와 탈춤 · 가면극 등의 연희와 놀이를 즐겼다. 머리 위 태양을 이고 여인들은 그네에 몸을 실어 바람을 가르며 세상을 보았고, 장정들은 씨름을 했다. 단오가 되면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고, 두루 널리 비추어 만물을 소생케 하는 태양을 누리며 삶의 희망을 소원하였다.

단오, 태양을 닮은 날

볕 좋은 날 창가에선 공기에 부유하는 먼지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 공간에 스민 햇살이 먼지를 비추기 때문이다. 이때 빛과 먼지는 하나가 되어 빛의 물결로 일렁인다. 이를 두고 노자는 '화광동진和光同塵'[7]이라 하였다. 태양이 빛을 부드럽게 늦추어 티끌과 동화한다는

광명시의회는 6월 5일 광명시 영회원에서 열린 '농업인 풍년 기원제' 에 참석하여 시민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였다.

1) 국립민속박물관 세시풍속사전 단오 – 지고(至高)한 신이 하강하는 날이라 하였다.
2) 국립민속박물관 세시풍속사전 단오 – 단오에는 마을마다 수호신에게 제의를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강릉단오제이다.
3) 국립민속박물관 세시풍속사전 단오 – 이를 단오부(端午符), 천중부적(天中符籍), 치우부적(蚩尤符籍)이라고도 한다.
4) 국립민속박물관 세시풍속사전 단오 –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창포탕에 머리를 감고, 얼굴을 씻고, 목욕을 하고, 홍색과 녹색의 새옷을 입으며, 머리에는 창포잠(菖蒲簪)을 꽂는 것을 단오장(端午粧)이라 하였다.
5) 국립민속박물관 세시풍속사전 단오 – 한국인은 일년에 세 번 신성 의상인 빔을 입는다. 설빔, 단오빔, 추석빔
6) 국립민속박물관 세시풍속사전 단오 – 절식단오 명절식으로는 수리취떡과 앵두화채가 있다. 창포로 빚은 창포주를 마시기도 하였다.
7) 노자 56장

뜻이다. 좀 더 풀이하자면 '화광和光'은 빛을 부드럽게 한다는 뜻이고 '동진同塵'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말한다. 단오, 태양을 닮은 날에는 대지의 만물에서부터 티끌까지, 태양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것이 우리네 '태양의 축제'[8]이다.

'부채, 자연과 가장 닮은 바람'

에어콘, 선풍기, 부채 그리고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서 맞는 초록바람! 바람이라고 다 같은 바람은 아니다. 어떤 바람은 차갑고, 또 어떤 바람은 시원하고, 선선하며, 또 다른 바람은 마음에 한 줄 바람까지 더해 준다. 태생이 다르듯, 온도와 방법을 달리하며 저마다의 바람을 인다.

더위로부터 자유롭고자 인간이 만든 문명의 바람들, 요즘은 버튼하나로 여름이 이내 차가워져 이 편리한 문명의 바람에 익숙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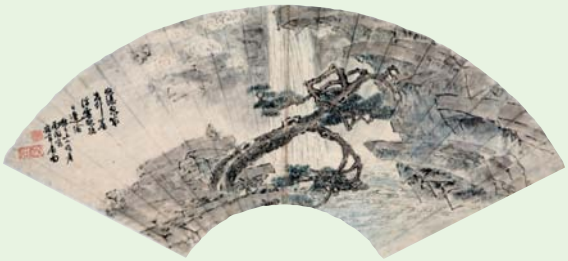
하지만 결국 지향하는 곳은 마음까지 선선해지는 느티나무 아래 초록바람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들 중, 초록바람과 가장 닮은 이는 누구일까? '부채!' 자연과 가장 닮은 바람이다.

'시골에서 생색나는 것은 여름 부채, 겨울 책력'

제15회 농업인 풍년 기원제 광명시 노온사동 영회원

이라는 우리말이 있다. 단옷날 부채를 나누는 풍습에서 유래한 말로, 정겨운 우리네 부채 인심이 느껴진다. 단옷날이면 공조와 지방에서는 부채를 만들어 임금에게 진상하였다. 그러면 임금이 신하들에게 부채를 하사하였고 신하들은 다시 부채를 일가친척 · 친지와 나누며[9] 여름을 준비하였다.

에어컨을 챙기며 여름을 맞이하는 우리와는 사뭇 다른 옛 풍경이다. 단오 부채, 자연과 가장 닮은 바람을 이웃에게 선물하였다.



능호관 이인상, 송하관폭도 松下觀瀑圖 종이에 엷은 색 23.9x63.2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시대에 활동한 이인상의 그림 중에 부채 그림이 유독 많은 것도 주목된다. 부채에는 누구를 위해 그렸는지 그림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다. 아마도 지인을 위해 멋진 그림부채를 선물한 것이리라. 여름나기 선물인 셈이니 운치가 가득하다. 부채는 더운 여름날 필수품이었고, 그림이나 글씨를 써서 선물하기에 좋았다. 그림을 그려 주고, 또 벗들의 그림에 글도 남기면서, 이인상에게 그림은 사람을 만나고 정을 나누며 소통하는 매개체였다.』[10]

8) 국립민속박물관 세시풍속사전 단오 – 단옷날은 계절적으로 태양축제에 속한다. 7세기 문헌인 『수서(隋書)』에 신라 사람들을 가리켜 일월신(日月神)을 경배하는 민족이라 하였는데, 정월 대보름 축제가 달의 축제였다면 단오 축제는 태양의 축제라 할 수 있다.
9) 국립민속박물관 세시풍속사전 단오 – 단옷날에 선물로 주고받는 부채를 단오선(端午扇)이라 한다. 부채는 전주와 나주에서 만든 것을 최상품으로 쳤다.
10) 국립중앙박물관 이인상 전 도록

‘조선’

새로운 시대를 연 군주의 시선(詩選)은 어떠했을까?
조선의 남자, 태종 이방원의 시를 읊어본다.

영 단 선詠團扇

태종 이방원李芳遠

風榻依時思朗月 (풍탑의시사낭월)
月軒吟處想淸風 (월헌음처상청풍)
自從削竹成團扇 (자종삭죽성단선)
朗月淸風在掌中 (낭월청풍재장중)

바람 선선한 평상에 기대 앉아있을 때에는
밝은 달을 그리고,

달빛 환한 뜨락에서는
맑은 바람을 생각하네.

이에 스스로 대나무를 깎아
둥근 부채를 만드니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이
내 손안에 있도다.

〈동현서당 훈장 소천 박영호〉

달과 바람을 손 안에 부채로 담아 한 줄 시원한 바람으로 가진 자,
그 바람을 업고 조선을 가졌다. 명월과 청풍을 스스로 가진다는 내용만큼 형식 또한 칠언절구의 격식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다. 가히 조선을 세운 태종다운 호방한 시정詩情이다. 태종 이방원[1], 시선詩選[2]이 시선詩仙[3]이다. 올 여름 소망하는 무엇, 부채에 그려 삽상한 한 줄 바람으로 가져보면 어떨까.

1) 태종(太宗)이방원(李芳遠)(1367년~ 1422년)은 태조의 다섯째 아들로 이성계를 보필해 조선왕조 개창에 공헌하였다. 중앙집권을 이룩함으로써 세종 성세의 토대를 닦았다.
2) 시선(詩選) 시를 뽑아 모은 책
2) 시선(詩仙) 선풍(仙風)이 있는 위대한 천재 시인. 이백을 일컬음. 두보를 시성(詩聖)이라 이르는데 상대하여 '이백'을 이르는 말.

정용연 의장,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정용연 의장이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카네이션으로 전하는 사랑 나눔잔치’에 참석하여 어르신들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있다.

고순희 의원, 어려운 이웃 주거환경 개선

고순희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스피돔 시설봉사팀이 광명시 소외된 이웃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역 이웃과 봉사팀의 가교역할을 하며, 지역사회 상생과 공존을 도모하고 있다.

권태진 부의장, 철산도서관 방문

권태진 부의장이 제18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현장방문에서 2013년 3월에 개관한 철산도서관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도서관측과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강복금 의원, 영회원 진입로 정비해야

강복금 의원이 제182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문화관광과 현장방문에서 영회원을 방문하여 진입로를 정비하고 주차장을 만들어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영희 의원, 가학광산동굴 안전 당부

문영희 의원이 제182회 임시회 테마개발과 현장방문에서 가학광산동굴이 광명시민들의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현수 의원, 광명경찰서 전 · 의경 인권강의

문현수 의원이 지난 5월 29일, 광명경찰서에서 전 · 의경을 대상으로 인권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특별강의를 진행해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병주 의원, 소하~가학 자전거도로 현장방문

이병주 의원이 제182회 임시회 도로과 현장방문에서 소하동~가학동(가학광산)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벌목을 줄이고 환경파괴를 최소화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 조성을 당부했다.

서정식 의원, 전통시장 지원방안 강구해야

서정식 의원이 제182회 임시회 기업경제과 현장방문에서 광명재래시장을 방문하여 고객 편의시설 확충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준희 의원, 메모리얼파크 진입로 실태점검

이준희 의원이 제182회 임시회 도로과 현장방문에서 극심한 커브 길로 인해 많은 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메모리얼 파크 진입로의 실태를 점검하고 건설사에 시정조치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부연 의원, KTX역세권사거리 민원 청취

소하동 KTX역세권 사거리의 불합리한 구획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이를 수렴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광명시에 요구했다.

조화영 의원, 지역야구인들 격려

조화영 의원이 광명시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야구대회에 시상자로 참석하여 지역 야구인들의 열정과 노력을 격려하고 있다.

김익찬 의원, 주민센터 환경개선해야

김익찬 의원이 제182회 임시회 자치위원회 현장방문에서 광명5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들을 위해 센터 환경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정활동 이모저모

“잘해야겠습니다”

광명시의회가 오랜만에 왁자지껄합니다.
광명시 초등학생들이 단체로 견학을 왔기 때문이지요.
의석에 앉아보고, 회의도 합니다. 요 녀석들, 마냥 신기한가봅니다.
이 아이들 중 누군가는 수년이 흐른 뒤, 바로 이 곳에 앉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광명’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잘해야겠습니다.

–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

Gwagmyeong City Council

Photo Essay

▲의정자문위원과의 간담회(4. 1)▶

◀자치행정위원회 비교견학(4. 1)▼

▲의정동우회 회원과의 간담회(4. 16)
◀관내 동대장과의 간담회(4. 9)

Gwagmyeong City Council

Photo Essay

▲관내 초등학생 의회 견학(4. 11)

◀광명경찰서 간부들과의
간담회 및 족구대회(5. 13)

◀광명시청 공무원노조 임원들과의 간담회(5. 15)▲

◀문현수 의원, 옥길동 볍씨학교 학생들과의 간담회(5. 16)▲

▲결산감사위원 위촉, 대표위원 유부연(5. 15)▶

◀관내 주민자치위원장 및 간사와의 간담회(5. 20)▲

Gwagmyeong City Council

Photo Essay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 방문(5. 24)▼

▲시의회 의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5.28)▼

Photo Essay

▲순천시의회 방문(6.13)▶

▼순천 국제정원박람회 견학(6.13)

▲광명시의회-안동시의회
합동 연찬회(6.25~27)▼▶

Gwagmyeong City Council

Photo Essay

◀광명시의회-안동시의회
합동 연찬회(6.25~27)▼

iGBS

GWANGMYEONG
BROADCASTING
SYSTEM

광명시의회
인터넷 방송

광명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http://gmcl.or .kr/ 의회소식란에
의회방송 클릭!

쌍방향 소통으로
다양한 민의를 공유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광명시의회

www.gmcl.or.kr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